

# 「Thinking Inside the Box - The Art of 'Andrew Krieger」 상자 안에서의 사색-앤드류 크리거의 예술세계

724-8671 | 2022년 7월 28일 | Consonan Museum of Art

8.30PM

혹가할만큼 세게 쳐서, 끈질기게든 비교적 힘이 있는 분위기가면 확실한지 좀 어려운 근대 초기 드로잉 형태대로 중심한 느낌이었다. 도시 복원에 보여 있는 문화적 다양한 양상을 통해가라고 하듯, DC 내의 날 볼 주면은 인종을 포함한 각양 각색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바로로 실수로 많은 후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을 찾고, 박물관을 쓰나들며, 기념품 아래서 설명문을 자세히 없는 설의 있는 모습들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이 전해온다. 각자에게 주어진 생활의 틈에서 문화를 즐기는 새로운 지어다 커져 가지 의외로 다가가 것이다. 어쩌면 인생이 완성된 기운 동안 뻗은 일로 이루어지는 열정들일지 모른다. 그런 중 기쁨과 고통의 나열이 있고 각자의 발걸음에서 그에 따른 다채로운 사인들이 채워지는 것 같다.

이 공간은 우리의 삶을 하나의 맥스 안에서 떨어지는 일로 재미있게 말살한 아이디어를 만들었다. 2019년 서울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앤드류 크리거(Andrew Krieger)의 전시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를 '무한한 상상력과 창조적인 아티스트'로 칭했고 맥스 아티스트라고도 칭하였다. 어떤 전시에서 선보인 100여 점의 다양한 작품들은 대부분 새로운 새로운 맥스 안에 펼쳐 놓은 우리 생활의 줄거이다. 현실 없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아티스트들에게 말할 수 없이 줄거을

무대가 현대 미술이긴 하나, 아이디어의 고집은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공통점이라 하. 빛, 소리, 촉각 등이 혼합된 작품에서 크리거가 나타내려고 하는 바는 그런 감정을 해소시키려는 듯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고 있는 것 같다. 작품에서 드러나는 표현은 직선적이지만 정작 그것을 넘어선 이성과 욕망의 재조율을 속 말시키려는 의도가 핵심이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작가 자신의 열정적 에너지들을 끌어와 소재에 구체 반치 않고 사용하는 자유 관행임을 엿볼 수 있다. 변화가이자 조화가이기도 한 그의 어떤 전시 작품은 대부분 생활의 도구가 되는 소재들을 사용했다. 그 덕분에 감상하는데 부담을 덜어주며 친근감이 느껴져서인지 폭넓은 관람객이 줄을 잇고 있다. 모교인 캘리포니아 워싱턴에 거주하는 저명한 아티스트들을 위해 기획한 이 전시는 또 다른 작가를 위한 무대로 연결되어 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 하니 기대해 볼 만하다. 당

Party Booths at the Blue Club



Unlified Fellow

Cool Dance at the Needle Club



# Art price

새로운 미술컬처 전문지 월간 아트프라이스

## Cover Story | Frank Stella

09

2004 Vol. 1

Special Research 기업과 미술가(국내판)

Theme in Artists | 정신을 담은 그림으로서의 조각상

Artist Forum | 김우진, 백정숙, 우혜원, 윤종규, 이혜자

Worldwide Auction News | 해외 주요 경매사 옥션 리포트 100선

